

순수와 수행의 향기가 현시대의 빛이 되기를

중앙승가대의 오랜 자취이자 어엿한 역사로 자리한 승가대신문 300호 발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때마침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봄소식처럼 모두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의 참신한 출발점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간 궁색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호 한호의 지면을 충실하게 채우고자 했던 열의는, 수많은 애환과 더불어 소중한 300걸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녹여낸 순수와 열정이었기에 단순히 그때를 확인하는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현시대에 다시 생동하고 현재의 정진에 큰 힘이 되는 초심의 경책과도 같습니다.

내 안을 돌아보는 이야기, 이웃과 사회의 이야기, 승가와 종단의 이야기, 여느 신문보다 다채롭게 꾸밀 수는 없었지만, 매 순간의 삶, 참회와 정진, 발원과 실천, 모두를 진솔하게 전해온 듯합니다. 이로써 오히려 더 참되고 향기롭기에 시간들을 넘어서며 지금까지도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인으로서의 순수한 마음과 초발심이 동화된 눈으로 승가와 종단, 그리고 사회와 이웃을 투영하고 따뜻하게 전하고자 했던 학구열은 승가대의 자부심이자 빛나는 공적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승가와 종단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사회와 인류가 희망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진의 연속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미래를 위한 큰 바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앞서 걸어간 스님들, 그리고 전 종도의 깊은 관심은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발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변화의 시작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의 소중한 결실로 회향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책무와 여기서 오는 자긍심은 결국 일생을 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는 곧 개인의 성취를 넘어 종단의 결실, 그리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대마다의 진력과 이로써 쌓이는 공덕을 잘 계승하여 현시대를 빛내주길 바라며, 뒤를 잇는 후학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 모두의 축하와 더불어 300호의 공덕을 거듭 치하하며, 언제나처럼 학구열과 수행의 향기가 깊이 배어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